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17, 예레미야 11-20, 예언적 표징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7절, 예레미야 11-20장, 예언적 표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11장부터 20장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과 애가를 다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애가는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의 고난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에서 일어나는 언약의 파탄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백성들에게 묘사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표징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의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주요 주제를 설명하는 산문 설교로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언약이 깨졌고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11장 10절과 전체 섹션에 걸쳐 추적될 이 궤적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어겼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이 피할 수 없게 하리라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이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산문 설교가 예레미야가 그 섹션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주요 주제를 요약하거나 소개하는 방식이라고 몇 번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11장이 언약 깨짐, 즉 언약이 이음매에서 풀리는 개념을 소개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11장부터 20장까지의 주요 초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선지자가 이 가운데 붙잡혔다는 의미를 봅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행할 여러 예언적 표적 행위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인 행위 중 일부는 우리가 이야기할 책의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표적 행위는 선지자가 일종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여 보다 극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메시지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에 반영된 또 다른 방식은 예레미야가 종종 단순히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연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설교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Kelvin Freibell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예언적 표적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훌륭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적인 요점은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선지자가 단순히 행동함으로써 믿는 것을 마법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 자체로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마술적인 방법이 됩니다. 프라이벨은 그것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표징 행위를 행하는 이유나 핵심 사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특정한 행동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마술처럼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도 하도록 하는 강력한 형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들을 때, 무언가를 듣고 볼 때 그것을 기억할 가능성이 있는 백분율,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더 생생하게 기억되는 경향에 대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당신은 또한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하품을 하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와, 우리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 들었는데 그들은 하품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메시지를 전파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품을 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맞설 것입니다. 그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그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깨진 언약의 실상을 전달하는 몇 가지 중요한 표징 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들보를 묻은 표징행위, 혹은 예레미야가 속옷을 묻은 선지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유다 사이의 깨진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그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가서 베 들보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들보를 사서 허리에 두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했습니다.

네가 사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거기 바위틈에 감추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프라테스 강가에 숨겨 두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거기서 가져오라 하시니라

그 후에 내가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땅을 파고 그것이 숨겨졌던 곳에서 들보를 가져왔더니 보소서 그 들보가 상하여 쓸모가 없게 되었나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좋았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멸하리라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따르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는 이 악한 백성은 이 때가 아무 쓸데 없는 때 같으리로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속옷을 묻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예레미야서에 대한 존더반 그림 성경 배경 주석은 이 특별한 옷이 어떻게 생겼을지 우리에게 묘사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에서는 아마포 띠나 이와 같은 허리띠를 묘사하는데, 이는 단순히 허리를 감싸고 특정한 방식으로 입는 옷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예술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리를 관통하는 겹쳐진 천 조각을 입고 있는 시리아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예레미야가 사각팬티를 입었는지 아니면 팬티를 입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신학적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좋아요. 그것은 실제로 관련이 없지만 우리에게 약간의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과 그 표징 행위의 전부는 예레미야가 이 아마포 허리띠를 몸에 꼭 맞게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다른 장소로 가져가서 바위에 묻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여러 날이 지나 다시 돌아와서 이 망가진 허리띠를 파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착용한 후에 이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묻습니다.

이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징 행위에는 그가 이 망가진 허리띠를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내밀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esv에서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곳은 예레미야가 이 허리띠를 묻을 곳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약 300마일, 300마일이 넘는 여행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여행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이 긴 여행을 하고 이 옷을 묻으라고 요구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파라(Parah)는 350마일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구약성서의 두 군데에 언급되어 있는 파라라는 곳일 수 있으며,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서 북서쪽으로 약 4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 대신에 파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몇 마일 떨어진 파라로 갑니다.

그는 그것을 묻고 나중에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 천을 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적 행위의 핵심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여호와와 말씀의 선포하게 하였느니라 주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고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좋아요. 따라서 여기에는 단순히 선지자가 거룩한 속옷을 들고 이것이 그들의 파멸된 상태를 반영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들보는 아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들보는 값비싸고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포는 레위기 16장에서 제사장의 옷으로 사용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적 지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레위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로서 출애굽기 19장, 제사장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을 때 제사장들에게도 성별 의식이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피를

뿌려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그분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아마도 리넨이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사람들을 친밀하고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들보, 이 허리띠는 몸에 밀착하여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동사는 동사 davaq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 24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 관계를 맺고 서로 달라붙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아내와 한 몸이 될 때까지 그 아내에게 매달리거나 달라붙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자신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들보도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마지막에는 아마포 소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옷이 몸에 밀착되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교회의 상태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세계. 그것은 역겹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다시 가져올 때, 그것은 유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되었는지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이름으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삼으시도록 계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반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분을 숭배하기를 원하도록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찬양하고, 높여야 했습니다. 이 망가진 허리 천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어요.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경험을 겪으면서 가난과 식인 풍습과 온갖 끔찍한 일들에 시달렸습니다.

딱히 끌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유다는 존재 당시에 이미 멸망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표징의 행동, 즉 망가진 허리띠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선지자가 직접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허리 천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단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이에 대해 약간의 논의가 있지만 13장 12절에서 14절에 이어지는 표징 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단순히 잠언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시각적 시연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13장, 12장, 14장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또한 유다의 파멸된 상태, 깨어진 언약,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12절은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향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하리라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사인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마도 속담이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모든 향아리는 포도주로 채워져야 한다.

아마도 선지자는 술병이나 단지, 어쩌면 포도주가 담긴 부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밀었고, 그것은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단지 신탁을 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인병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그는 모든 향아리가 포도주로 채워질 것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다시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해 보이며 그것이 사람들이 다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향아리가 포도주로 가득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거의 '아, 우리는 이해합니다. 와인병의 목적은 와인을 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신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가 아마도 이 플라스크를 들고 있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약간 짜증나게 하는 이런 종류의 뻔한 말로 시작하지만 플라스크는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와인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최소한의 다과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제 행사, 축하 행사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포도주 향아리는 다른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후에는 모든 향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취하게 하리라

왕좌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이니라 좋아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거예요. 이 시점에서 포도주 병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는 다과나 축하, 결혼이나 수확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포도주병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압도할 하나님의 강력하고 강력한 심판에 도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들은 이 판단의 무게 때문에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25장에서 유다와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특별한 상황에서 그는 또 다른 사인 행위를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포도주 잔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가 건배나 축하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와인은 즐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서로 치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쳐부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취하면 술병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깨어지고 부서지리라.

우리는 망가진 들보로 만든 것과 똑같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의 목적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들보는 몸에 가깝게 착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망가진 옷이 되어버렸네요. 유다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분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열방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담기 위해 포도주병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병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장, 12장부터 14장까지 실제 표징 행위가 행해졌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이 메시지를 설교할 때 예레미야가 이 포도주병을 들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메시지를 더욱 주목할 만한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 수행될 여러 표적 행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도 선지자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메시지가 너무나 긴급해서 선지자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에 사용된 다른 표징 행위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인 행위가 사용되는 경우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표적 행위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에 좀 더 집중할 것인데, 18장과 19장에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두 번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표적 행위입니다. 포도주 병에 관한 표징 행위는 도자기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18장과 19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표징 행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27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속박에 놓이실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설교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설교할 때 목과 어깨에 동물 멩에를 메어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단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이 멩에를 메고 있고 어찌면 그 무게에 짓눌려 이 나무 멩에를 둘러싸며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의 속박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멩에는 바빌론에 대한 정치적 종속을 효과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뒤에도 분명 사람들이 이야기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보셨나요? 예레미야 32장에는 예레미야가 그의 사촌 하나멜에게서 가족 재산을 다시 사거나 구속하려는 긍정적인 표징이 나옵니다. 하나멜은 이 부동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레위기 25장은 가족 구성원이 빚이나 다른 이유로 재산을 팔아야 할 때 그 재산을 다시 사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 재산은 주님께서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의 손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율법에 규정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행동도 표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땅을 점령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기 직전에 이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사려고. 그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러 오고 있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걱정해야 합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 땅을 샀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이 가족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두 문서를 주의 깊게 기록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과 그 땅이 한 번은 그 땅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것이 됩니다. 또 바벨론이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면 그 밭을 다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는 이런 법적 절차를 밟을 이유는 없지만 선지자가 단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산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방식으로, 즉 유배 생활에서 돌아올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예레미야 43장에는 또 다른 표징이 있는데, 이는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데리고 간 유대인 난민들에게 행해진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게드 알리야의 암살에 대한 바빌로니아인들의 보복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

그들은 이집트로 가서 지리적 위치를 바꾸면 느부갓네살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유다의 최악된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집트로 가는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의 군대를 이집트로 데려올 것입니다. 내가 유다 왕에게 준 것과 같이 애굽 왕도 바벨론의 손에 붙이리라. 우리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을 침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메시지를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마음이 완악하고 반항적이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정말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뭔가를 할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 도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문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실제로 바로의 집 입구에 있는 포장도로를 파려고 합니다.

그는 그곳 땅에 돌을 묻을 예정이다. 그 돌들은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곳에 놓일 느부갓네살의 보좌의 기초석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나는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보세요, 이곳이 느부갓네살이 그의 권위를 세울 곳입니다.

이집트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그가 이 일을 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 말은, 그것은 꽤 파괴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메시지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51장에서 예레미야의 사역과 관련하여 수행된 마지막 표적 행위를 봅니다. 이 특별한 표적 행위는 예레미야의 주요 서기관인 바룩의 형제로 보이는 서기관인 새라이아에 의해 수행됩니다. 새라이아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시드기야에게 그곳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때 시드기야와 함께 바빌론으로 갑니다.

그분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포하십니다. 선지자의 메시지인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심판은 별도의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새라이아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읽은 후에 그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돌을 묶고 두루마리를 유프라테스 강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메시지를 읽고 그 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통해 바벨론의 최종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멸망되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운명이 정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바위에 묶인 두루마리와 같았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인 행위는 그것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 설교가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의 맥락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어린 아이들의 경우,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예언서에 다른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생생하게 실행하기 위해 꽤 흥미로운 표징 행위를 행한 다른 선지자 몇 명을 언급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에서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맨발로 가서 3년 동안 그 길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자는 이번 주에 벌거벗고 맨발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 주어 유다 백성과 유다 지도자들이 그들과 어떤 종류의 군사 동맹도 맺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당신이 아시리아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굴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한 가지 강조하자면,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설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 행위의 주인이었을 선지자는 속옷을 묻는 것 이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징의 주인이 되는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한 몇 가지 표적 행위에 관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의 백성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전파하고 있는 유배자들도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겔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며,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함락시키고 더 많은 동족을 그곳으로

데려오면 더 큰 포로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 집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메시지를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에스겔 4장과 5장은 에스겔이 돌 위에 예루살렘의 모형을 세웠다고 알려 줍니다.

그는 이 작은 모델을 바탕으로 공성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레고를 가지고 노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는 이 모형 바깥에 철판을 놓고 철판 반대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로 인해 분리되는 것을 상징하며, 모형은 바벨론 군대가 돌아올 때 일어날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황폐화시켜라.

그 일환으로 에스겔은 나가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밖으로 나가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의 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거기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대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무엇을 하는지 보셨나요? 글썄요, 그는 다른 날 238일 동안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에스겔이 침묵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편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 봤었 어? 430일 후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이후에도 그들은 별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사람들이 겪게 될 포로 생활의 공포와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표징 행위에 수반되는 다른 일들도 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얼굴과 머리에 있는 털을 면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대머리가 된 후에 머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상징하기 위해 그것의 3분의 1을 바람에 던집니다.

그는 칼을 들고 머리카락의 3분의 1을 잘라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는 그것의 3분의 1을 태운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허리띠에 두르는데, 그것은 이 심판이 끝난 후에 남겨질 남은 머리카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종류의 곡식으로 빵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정말로 건강한 형태의 빵에 대한 조리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비슷한 것을 사용한 에스겔 빵이 있는데 꽤 맛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인 행위가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기근의 상태와 식량이 얼마나 적은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소량의 물과 함께 하루에 8온스의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근과 가뭄, 식량과 물의 부족 등이 유배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에게 이 빵을 사람의 배설물 위에 구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포로 생활의 조건은 이스라엘을 부정한 땅으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거나 육체적 정결에 대한 생각과 실천에 대해 걱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에게 이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의 배설물 대신 동물의 똥으로 빵을 요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12장에서 에스겔은 소지품을 챙기고, 벽에 구멍을 파고, 예루살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백성에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몇몇 완고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생생한 방법으로 종종 수화를 사용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일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인간의 말이나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언어의 부족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들어보아야 해요. 나는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이 표징 행위 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두 차례 토기장이 방문입니다. 여기 18장 구절이 있고, 여기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1절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듣게 하리라 하신 여호와와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그가 거기서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부패하매 토기장이가 그 선한 뜻대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니라 . 좋아요, 이게 무엇을 전달하려는 걸까요? 5절 이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할 수 없느냐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만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뽑거나 멸하고 멸하리라 하였더니 만일 그 민족이 내가 말한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것. 만일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대하여 내가 임하여 심으리라고 말하였거든 그것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내 목전에 악을 행하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복을 그치리라 .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노라

모든 사람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래서 도예가를 방문하면서 전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지 도공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관념이 매우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도공이라는 단어인 yotzer는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동사 yatsar의 명사로 사용되는 분사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yatsar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진흙 인형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이 진흙 인형을 만드신 다음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기서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인류를 형성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형성하시고 그들을 한 나라로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였나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당신은 토기장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이시며 조성자이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토기장이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할 수 없느냐?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과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에 강박하게 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심판하실 권리가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은 자비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멸망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읽어 보면, 그것은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그런 종류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그것들을 형성하고 형성할 수 있으며 그가 원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언급하는 이 진술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께.

그리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단순히 그것들을 빚으시고 모양을 만드시고 꼭두각시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형성하시고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형성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 전체에서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즉 예레미야서 초반부에는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섹션에서는 그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섹션 마지막 부분인 21~25장에는 귀환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상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점토는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형성되고 형성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보아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강조한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길을 바꿀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가 읽는 구절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 그리고 여러 면에서 선지자들의 사역의 기초가 되는 신학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한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며 특별히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를 뽑고 부수고 멸하리라 선언하거든 이는 1장 9절의 동사임을 기억하라 예레미야의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고 뽑으시고 파멸시키시며 그 나라가 그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날에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그래서 선지자들이 심판을 발표할 때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돌에 고정되어 있어서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일어날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 즉 토기장이를 처음 방문했을 때,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도자기를 가져다가 모양을 바꾸고 개혁했습니다. 이 시점의 이스라엘, 역사상 이 시점의 유다는 자신들의 길을 바꾸고 멸망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판결.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미래의 유령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단지 스크루지의 파멸을 알리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경고를 주어 그가 자신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그림자는 다른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는 크리스마스의 유령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혀 하나님께서 곧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길을 바꿀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토기장이가 되어 사람들과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고 형성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구절에서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분께 반응하는 방식에 비추어 그분의 반응과 결정을 형성하시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때때로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회개하고 당신의 길을 바꾸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서에는 실제로 변화의 조건이나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분의 행동 방향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이 계속된다면 9절에서 그분은 예레미야의 사역에 긍정적인 동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선언하더라도, 그것이 예레미야의 구원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가 돌아서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선한 사람도 보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는 반응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 체계가 무엇이든,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주고받기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디에 두든, 하나님은 기꺼이 그분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그분이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 방침은 그들의 반응에 기초합니다. 이제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갈 때 선지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심판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나는 그들이 그들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5절에는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섰다. 그들은 굽은 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말은, 그들은 정말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굽은 벼를 입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어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에 선지자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 모든 시대에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미가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예레미야 이전 세기에 유다에 온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유다 자손에게 이르시되, 야곱 집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공의를 미워하고 모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느니라. 좋아요, 그게 비난이에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더 많은 비난과 발표. 그들은 피로 시온을 건설하며 불의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느니라.

그 우두머리는 뇌물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성직자들은 대가를 받고 가르칩니다.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냐 하느니라 좋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당신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갈아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의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이 되고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는 너희의 불의와 폭력과 유혈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대우와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 하나님께서 시온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로 변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미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느스웨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뉘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판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다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서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할 때 미가가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설교했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론에 참여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다른 장로들이 모인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온이 밭처럼 갈아엎으면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여호와의 전의 산은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이 되리라

그것이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사람이 그를 죽였느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뉘우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재앙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미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길을 바꾸고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제 성경과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다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을 거절하신 후.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언을 하신 곳입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민수기 23, 19장.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시며,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사람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한 특별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행해야 할 특정한 언약적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예가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길을 바꾸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정말 유효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19장에서는 토기장이를 두 번째로 방문한 일을 알려 줍니다. 이번에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도공의 토기병을 사세요. 백성의 장로 몇 사람과 제사장의 장로 몇 사람을 데리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 질그릇 문 어귀로 나가서 여호와와 말씀의 선포하라. 좋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의 상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공은 더 이상 모양을 만들고 다시 만들고 개질할 수 있는 젖은 진흙을 가지고 물레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질그릇, 즉 토기장이의 항아리를 샀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해고되었습니다. 들어있는 상태로 굳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는데, 내 생각엔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힌놈의 골짜기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린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무죄한 피를 흘린 곳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에 선지자가 한 일은 그가 이 질그릇, 즉 토기장이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땅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관참은.

이때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사역의 현실인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에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종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예가를 두 번 방문한 것은 정확히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의 백성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19장에서 이집트의 관습을 상기시킵니다. 이집트인들이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할 때 이집트 사제는 일종의 마법 의식을 통해 이 질그릇에 이집트의 적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을 땅에 박살낼 것입니다.

신들이 우리 적들에 대한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는 격려 집회 동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상징이 사용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힌놈 골짜기에서 행한 끔찍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로 돌아오라, 너희 길을 바꾸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점토는 아직 젖어 있습니다. 아직 성형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사역 초기, 바벨론의 침공이 일어나기 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그만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그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유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신실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도예가를 처음 방문하는 것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두 번째로 방문한 이면의 표징 행위이자 그가 그 특별한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7절, 예레미야 11-20장, 예언적 표징입니다.